회의 날짜 20.03.16

회의 참석자

컴퓨터정보공학부 201421314 강현신

컴퓨터정보공학부 201421334 박재근

컴퓨터정보공학부 201421349 안종현

컴퓨터정보공학부 201421385 최재훈

그리기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우한 코로나로 인해 만나기 어려워서 를 이용하여 음성 및 채팅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내용**

1.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2. 팀장과 팀 명이 무엇인가?

**1.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팀원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할 지 방학부터 꾸준히 토론해왔다. 프로젝트 초안으로는 가톨릭대학교 트리니티, 사이버캠퍼스, 가대톡을 통합한 서비스, 제주도의 날씨돌에서 착안한 날씨를 알려주는 돌앱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학교 시스템 통합을 선정하여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개발수단과 개발 방법론에서 착오를 겪어 프로젝트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둔 채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2020 스마트 관광 앱 개발 공모전” 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로 OT를 보던 중 외부 공모전에도 나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공모전에 나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팀원들과 의논하고 토론하며 우리 팀은 “2020 스마트 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후 온라인 강의 OT에서 외부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팀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한 결과, 우리 팀은 “2020 스마트 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https://www.true-inno.com/ko/suggestionView.do?cSeq=46ad7bc159da30c5b21b7871260a9f8f&strSearchType=>

*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API를 필수로 사용해야한다. 관광정보 API에는 관광장소의 사진이나 축제, 숙박업소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이를 사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나 토론한 결과 공모전의 기본 취지와 의도에 집중하여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방향성을 좁혔다.
* 공모전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었는지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지난 공모전 수상작들을 검색해보고,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해봤다.
* 팀원들끼리 여행을 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의견을 나눌 때 숙박과 음식이 나왔다. 이 중에서 숙박관련 앱은 기존에 많이 있기에 음식에 집중해보기로 했다.
* 회, 분식, 고기 등 먹고 싶은 음식 키워드를 선택하여 키워드별로 음식점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넣기로 했다. 카카오지도 API에 음식점들 별로 키워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키워드를 이용하기로 했다.
* 키워드 별로 음식점을 보여주는 의견에서 무슨 키워드를 정할지 결정하기 힘든 경우를 발견해서 예전에 봤던 사진 하나를 떠올렸다. 앱에 재밌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효과도 있는 방법이라 팀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 후에 관광지를 고를 때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하얀색, 모니터, 다른, 대형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2. 팀장과 팀 명이 무엇인가?**

팀명: 여행거르미

1. 키워드별로 음식점, 관광지를 걸러준다는 의미
2. 여행하는 사용자와 함께 같이 가며 도와준다는 의미

팀장: 박재근

팀원: 강현신 안종현 최재훈

**팀장이 할 일**

1. 고기방패 2. 발표 3. 영수증 첨부 4. 보고서 작성 5. 역할분담 시키기